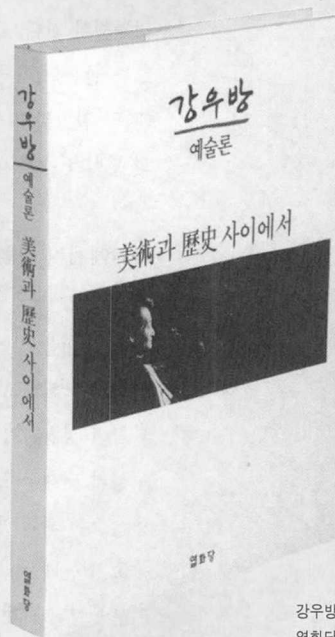


신라고도를 향한 신앙고백과 최상의 '치체로네'

강우방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를 읽고

이광주 |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강우방 지음
열화당/A5신/360면/18,000원

B형, 새벽 버스로 경주에 왔습니다. 불국사 가까운 호텔에 짐을 풀고 짙은 햇살이 깔린 트랙을 지나 청운교 · 백운교 · 자하문 · 범영루가 지호 공간에 비친 순간 '아, 불국사에 다다랐구나' 하는 감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 경주행은 얼마전에 나온 강우방의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를 읽으면서 고도(古都)가 사무치게 그리워 달려오다시피 온 길입니다. 5~6년 전 같은 저자의 《미의 순례》를 감명 깊게 읽고 그 뒤 방학을 기다려 정독한 《원융과 조화》가 안겨준 충족감이 후 이 미술사가는 저에게는 저서의 출간이 기다려지는 소중한 필자가 됐습니다.

향기로운 문장으로 씌어진 경주예찬

불상과 사찰건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외경과 정념, 구도자적이며 폭넓은 인문학적인 교양에 뒷받침된 치열한 학구정신, 그에 더해 독자를 그가 마련한 치밀하고도 호사스런 독무대로 끌어들이는 신선한 감성과 향기 높은 문장 — 이번 저작에서도 그는 미술서 읽기의 참맛을 십분 베풀어 그 여덕(餘德)으로 저를 불국사로 유혹했습니다.

B형, 예술론이라고 하나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를 저른 이 미술사가의 신라 천년의 고도를 향한, 그곳에 진좌(鎭座)하신 석굴암과 불국사에 바치는 신앙고백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느날 갑자기 나는 경주를 기억해 냈다. 그렇다, 경주로 가자. 경주에는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언(誓言)하고 박물관 연구원으로 미

술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며 청춘을 불사른 그의 경주, 그 경주에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삶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구절은, 지적 방황의 체형을 잔직한 독자들을 잠시 자기 감회에 젖게 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오랜 경주 생활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신뢰하게 된 자기 자신을 '문자로 사고하는' 미술사학자들과 구별짓는 바, 학문과 예술, 종교와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물론 이 믿음은 그의 에토스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짐작됩니다)이야말로 그가 석가정토에서 거뒀던 최고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영원회귀의 운명에 내맡겨진 듯”한 나날 속에서 아련히 미소진 남산의 파불(破佛)에 희열을 느끼고 보살들 손의 표정도 놓치지 않는,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의 풍광도 문화유산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의 탐구자는 서라벌 벌판의 한 그루 나무에도 애정을 기울이고 새들의 지저귀에도 가슴을 설레니, B형, 당신의 다정불심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삼보(三寶)' 에 얽힌 추억

B형, 우리의 고전문화를 창출한 통일신라란, 이 저작에 있어 이 땅의 건축 · 공예 · 조각 등 예술과 더불어 불교사상 특히 화엄사상과 선종(禪宗)의 원형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그 찬란한 문화유산 중에서도 저자는 석굴암과 불국사 및 성덕대왕신종을 '삼보(三寶)' 로서 받들고 있습니다. “불신(佛身)을 조각으로 나타낸 석불사, 불토(佛土)를 건축으로 나타낸 불국사, 불음(佛音)을 종소리로 나타낸 에밀레종, 이 세 가지를 통일신

라시대의 삼보라 해도 좋을 것이다.”

B형, 나는 이번의 경주 탐방을 경주를 부처의 나라, 우리 모두의 아르카디아로 꾸미는 데 핵심적이었던 이 '삼보'를 찾아뵙는 데 국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생시절 고적답사에 참가해 처음으로 찾아든 고도에서의 며칠간은 참으로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해맞이를 한다고 어둠을 헤치며 암석이 여기저기 드러난 가파른 잠목의 산길을 올라 토함산 석굴암에서 처음 맞이한 본존대불, 바로 그대로 이데아요, 영원인 그 숭고한 아름다움! 좀처럼 받을 옮길 수 없었으며 말을 잃게 한 그 순간은 그날 새벽을 나의 경주 순례의 '초행길'로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B형이 보내 주신 글에 부석사 무량수전을 찾은 '초행길'이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떠오릅니다. 무량수전을 향한 형의 지극한 애정과 더불어 말합니다.

그때의 경주 첫 나들이에서는 또 하나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학우들과 어울려 찾아든 토산품 가게에서 구한 석굴암 문수보살의 부조상 사진 한폭(사진 작가의 작품이 분명한, 제법 큰 그 사진은 여주인에 의하면 일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 가게에 남은 마지막 한폭이었다고 합니다)은 액자에 넣어 색이 바랄 때까지 20여년 동안 나의 방 한쪽 벽에 모셔왔습니다.

활짝핀 연꽃 위에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튼 자태, 머리에 보관(寶冠)을 받들고 살며시 잔을 받쳐든 오른손, 자브름하게 감은 눈, 풍만하기가

지 한 가슴이며, 허리에 드리운 왼손, 음색이 흐르듯 부드럽게 드리운 천의(天衣), 그 옷가에 가려진 청려한 몸매, 그 지혜의 '여신(女身)' 보살을 아침 저녁으로 우러러보며 경주를 향한 그리움을 키웠노라면 형은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장엄세계의 극치, 석굴암

B형, 언젠가 이야기했듯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카테드랄을 찾아나선 몇 해에 걸친 유럽기행에서 천상(天上) 높이 층층겹겹 투기(投企)되고 구축된 돌의 장엄한 미학, 빈틈없이 계산된 그 치열한 조형의지,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로마나 르네상스 양식의 나상(裸像)들이 죽 늘어선 피렌체 거리를 즐기면서도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던 위화감,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은 어느덧 경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를 터득한 우리의 미술사가는 여러 미술의 나라를 여행하며 "이제 나는 어디를 가든 자

유롭다"고 심경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동감입니다. 미의 세계에서 이교도임을 스스로 자각한 이방(異邦) 나그네길에서 그리고 70년대 암울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 마음의 고향이, 빛나는 상징적 토포스가 분명 실재한다는 벽찬 안도감은 두고두고 위안이 되고 저로 하여금 고전과 문화의 의미를 반추케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성스럽다.' 예술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을 같은 뿌리로부터 나온 것으로 동일시하는 저자의 미학은 통일신라가 이룬 모든 불상과 조형물에 대해 예술적이며 종교적인 상징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그에게 종교와 예술이 조화를 이뤄 창출한 장엄세계의 극치이며 석가모니대불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또한 석가의 정각(正覺)을 이룬 순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석굴암은 "석가가 정각한 연기(緣起) 사상적 구조를 '조화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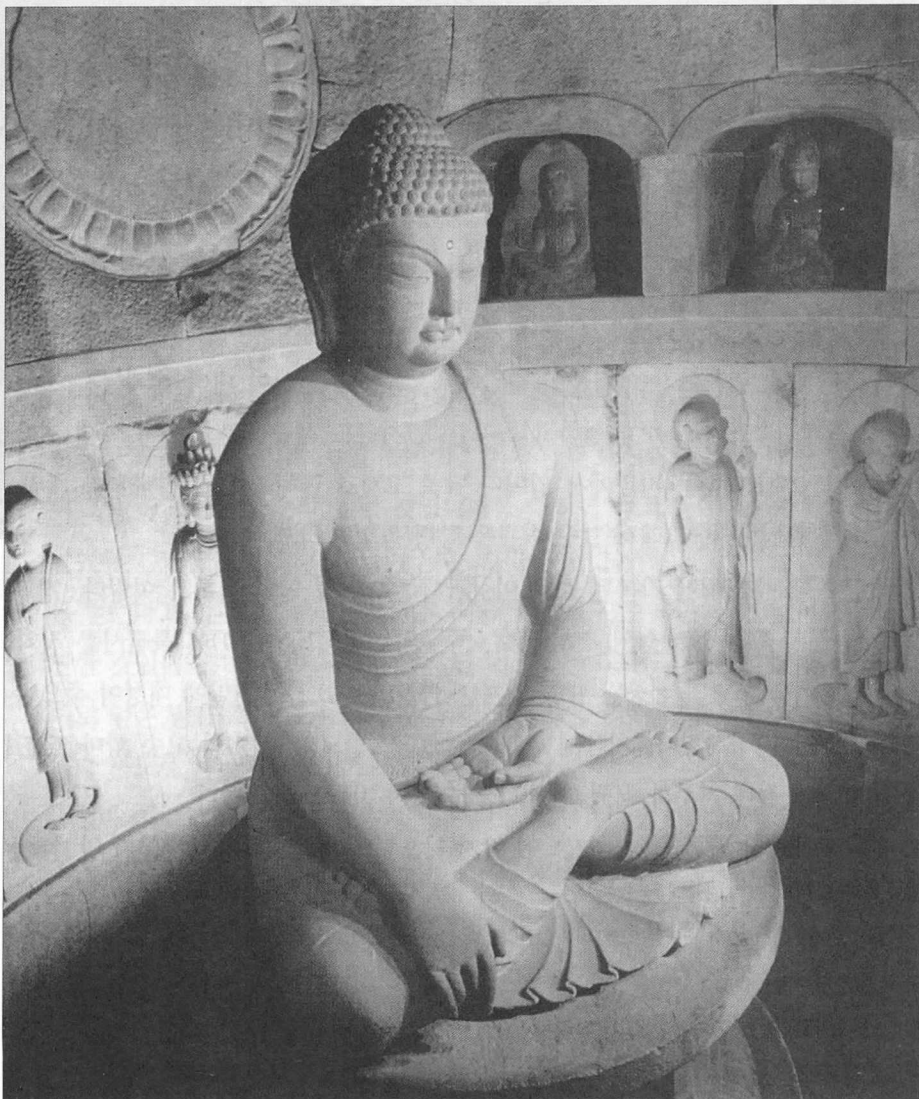
이란 비례의 구조로서 장엄하게 표출한" 조형언어입니다. 석굴암과 마찬가지로 불국사 또한 그에 의해 '일체즉일(一切即一) 일즉일체'라는 화엄의 원리인 연기사상이 그대로 조형화된 것으로 강조됩니다.

경주를 그림게 만드는 지적 유혹

B형, 불국사와 특히 석굴암을 비춰주는 저자의 키워드 내지 키킨셈은 '조화의 문'이란 비례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석불사의 장엄하고 숭고한 미는 건축에 내재된 조화물에 있다." 석굴암의 건축·조각·종교·수학·과학 모두에 관통하고 있는 유기적 관계는 수리적 비례에 기초한 것으로서, 예술작품이 조화의 개념을 부여하는 이 '비례'는 그에 따르면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비례원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자연·예술·종교·수학·천문학 모두는 이 '비례'에서 만나는 것으로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B형, 《미의 순례》에서 저자는 그 글들이 《원유과 조화》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씩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도 그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엄사상의 '비례'의 원리와 같은, 그리고 연기사상적 구조를 의미하는 '조화의 문'이라는 '비례'의 개념으로써, 다시 말하면 종교적 상징해석에 큰 무게를 뒤 예술작품을 불상과 석굴암·불국사를 규명하는 그의 방법론이 미술사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문외한은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글들이 저에게는 경주 탐방의 들도 없는 '치체로네(안내서)' 임은 분명합니다. 머지 않아 출간된다는 그의 연구 논저가 기다려집니다.

B형, 이 글을 쓰다 보니 또 경주가 그리워집니다. 단풍이 한창일 때쯤 우리 함께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아갑시다.●



석굴암은 회암적 세계관이 태어난 예술의식에 의해 조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석굴암 본존상.